

좀 더 편리한 와카야마 버스를 원해요!

최은지

와카야마에 온지도 거의 1년이 지났다. 지금까지의 생활 중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교통, 특히 버스의 사용이었다. 물론 버스가 대부분 제시간에 도착하는 것과 제속도를 지키며 안전운행을 하는 것은 본받을만한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비해 단점이 너무도 드러난다. 와카야마 버스의 문제점과,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해결책을 생각해 봤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 문제 1.

와카야마 버스는 막차시간이 너무 빠르다.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 중에는 빨리 끊기는 버스 중에는 오후 6시에 끊기고, 가장 늦은 버스라고 해도 11시 전에는 전부 끊긴다. 와카야마대학의 경우는 10시 20분의 버스가 시내로 가는 마지막 버스이다. 대학생인 우리들에게 10시면 늦은 시간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시험기간인 경우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시간이고, 만약 친구들과 놀 경우에는 아직 놀고있을 시간이다. 버스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버스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도 노는 것도 중간에 멈출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와카야마대학의 경우는 택시도 별로 없기 때문에 버스시간을 지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1시 30분~12시까지 버스를 운행해 주었으면 한다.

● 문제 2.

와카야마는 교통비가 너무 비싼데다 학생할인도 없고, 환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인 우리에게 교통비의 압력이 가장 심하다. 회관에 살고있는 외국인학생들의 대부분은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자전거로 1시간 가량 걸리는 학교까지 매일 자전거로 등하교하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난카이지역이나 시청까지 자전거로 간 후에 버스로 갈아탄다. 만약 비라도 오는 날에는 자전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회관에서 학교까지 왕복 1200엔의 버스요금이 든다. 아무리 일본이 물가가 높다고 해도, 하루에 1200엔은 도가 지나친 가격이다. 딱히 정기권을 산다고 해도 그렇게 할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코비토초에서 학교 (내가 이용하는 버스 노선) 까지 왕복 660엔이고, 정기권의 경우 매달 약 12000엔으로 마음껏 버스를 탈 수 있다. 만약 18일 이상 학교에 간다면 정기권을 사는 것이 이득이다. 하지만 한 달(=30일)중 8~10일은 주말이고, 휴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정기권을 사봤자 손해인 것이다. 결국 이렇다 할 이득없이 높은 교통비를 다 내야하는 것이다.

버스요금 자체를 낮추는 것은 버스회사에게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대신 학생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기존 요금의 70%를 학생요금으로 정하고,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에도 학생할인이 된 요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문제 3.

버스노선도가 복잡하다. 와카야마 버스는 노선에 따라 버스번호의 색깔이 다른데, 같은 노선의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행선지가 다른 버스도 있고, 색깔만으로는 원하는 장소까지 가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실제로 난카이 와카야마지역에서 일본인에게 버스노선에 대해 질문 받은 적도 있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와카야마 버스 노선도가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류장마다 각 버스의 노선이 자세하게 적혀있고, 대부분의 정류장에 이런 화면이 설치되어 있다. 이 화면을 통해 언제 버스가 도착하는지, 지금 버스가 어느 정류장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게다가 밑에 있는 버튼을 누름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버스의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와카야마에도 적어도 역 앞이나 인구이동이 많은 곳의 버스정류장에는 이러한 장치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각 정류장에 자세하면서도 보기 쉬운 노선도가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쳐나간다면 더 좋은 와카야마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